

2015-09

# Global Maestro News Briefing

## CLIMATE-SMART CITIES COULD SAVE THE WORLD \$22TN, SAY ECONOMISTS



최근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분야에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들어서면서 공공기능(교통, 전력망, 통신, 건강, 정부 등)이 향상되어 도시민의 생활수준을 높여주는 똑똑(스마트)한 도시가 전 세계 곳곳에 구축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도시화 현상을 고려하였을 때 살기 좋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를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도시로 변모하는 것은 하나의 핵심목표입니다. 현재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대책은 대중교통 확대, 에너지절약 빌딩, 그리고 향상된 폐기물 처리 등이 존재하는데, 세계 경제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를 추진 할 경우 2050년까지 약

\$22tn (한화 22,000조원)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연간 3.7gigaton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인도에서 배출하는 탄소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FCCC\*에서는 스마트시티를 통한 친환경적인 노력은 2C\*\*목표 달성하기 위해 역부족이라 주장하였으나 본 전문가들은 2C 목표의 20%를 달성가능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10년에 기상온도 2도 상승하면 최악의 재난을 겪을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현재 섭씨 1.5도로 추정됨

<http://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15/sep/08/climate-smart-cities-could-save-the-world-22tn-say-economists>

## INDIA'S RULING PARTY MOVES FORWARD ON '100 SMART CITIES' PLAN



인도 주요 도시의 도시화 현상과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인도의 도시 인프라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존재합니다. 현재 인도 인구의 31%가 국가 GDP의 60%를 형성하지만, 해당 인구가 2030년에 국가 GDP의 75%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도 도시 개발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는 물, 위생, 공공시설, 의료, 투자, 교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스마트한 도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인도의 총 98개의 스마트시티 구축대상 도시를 선정했습니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인도 정부는 2014-2015년도에 약 1.2조원을 예산 조달하였으며, 다음 20년간 약 12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해외투자자 대상으로 절세 및 세금면제 등의 제도를 도입해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http://www.enr.com/articles/706-indias-ruling-party-moves-forward-on-100-smart-cities-plan>

## CH2M AND CISCO TO DELIVER INTEGRATED SMART CITY SOLUTIONS



최근에 CH2M\*사와 글로벌 IT 기업인 Cisco사는 공동으로 도시계획, 디자인, 스마트기술의 융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인 글로벌 협력을 맺었습니다. CH2M사와 Cisco사는 첫 합작 프로젝트는 인도 델리-뭄바이 산업벨트 일부 구간인 Shendra-Bidkin\*\* 지역 스마트시티 사업입니다. CH2M사는 프로그램 관리자(PM)로, Shendra-Bidkin의 물질적인 인프라(빌딩, 도로, 수도, 에너지 등)와 전시회 및 컨벤션센터를 구축하는 역할, Cisco사는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 시스템 융합 계획 수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Shendra-Bidkin은 도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 수도, 신재생 에너지에 중점을 둔 매가산업도시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CH2M Hill, 총 매출액이 약 6.1조원(2014년 기준)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의 아우랑가바드시에 위치하는 지역이며, 델리-뭄바이 산업벨트개발공사(DMICDC)과 마하라슈트라 산업개발공사(MIDC)가 발주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임

[http://newsroom.cisco.com/press-release-content?type=webcontent&articleId=728651&utm\\_source=cisco.com&utm\\_campaign=release/728651&utm\\_medium=RSS](http://newsroom.cisco.com/press-release-content?type=webcontent&articleId=728651&utm_source=cisco.com&utm_campaign=release/728651&utm_medium=RSS)

## NO SMART CITY IS AN ISLAND

최근 미국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의 전문가들이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들은 통합된 계획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스마트시티의 구성은 성공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한 국가에 구축된 여러 스마트시티간의 정보교환, 각종 시스템간의 상호작용 등이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당국에서 여러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발주 했을 경우, 참여주체나 수행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점을 다른 솔루션으로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점을 두고 솔루션이 다른 각 도시들은 서로 연동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공통점을 찾아내고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구상할 필요있습니다.

\*NIS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원으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01년에 정부로부터 설립되어 현재 미국 상무부에 소속함

<https://fcw.com/articles/2015/10/23/iot-nist-smart-cities.aspx>

## INTELLIGENT CONNECTIVITY FOR SEAMLESS URBAN MOBILITY

스마트시티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활동, 생활방식, 필요, 위치 등의 개인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 Arup사와 Qualcomm Technologies사는 지능형 연속성(Intelligent Connectivity)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서에서 2030년에 스마트시티로 인해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를 표현한 표입니다.

직장인 사용권대소유권	학생 실시간 데이터 생태계	노약자 디지털 친숙화	가족 안전한 여행
<b>침실 &gt; 아파트</b> 침실 나옴 화장실을 입장하자 자동으로 샤워가 켜지면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통근소유시간, 날씨 등의 정보 제공	<b>학교 &gt; 자전거</b> 참석할 콘서트 정보와 자전거 렌탈 예약에 대해 질문하고 디바이스는 근처 친구를 검색하여 같이 밥먹을 사람 탐색	<b>집 &gt; 병원</b> 보험사에서 무인자동차를 집 앞으로 보내 고객 예약시간에 맞춰 병원에 운송. 차에서 자동으로 건강관련 정보 전송	<b>비행기 &gt; 공항</b> 여행 준비하는 동안 지능형 기술은 여행자 맞춤형 활동 및 관광지를 선정하며 날씨, 교통, 짐 등을 추적해줌
<b>아파트 &gt; 버스</b> 음성으로 버스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고 아파트에서 자리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 잠기며 사용하지 않는 기기의 전원은 꺼짐	<b>자전거 &gt; 식당</b> 렌탈장소에서 거리 및 이용시간 반영하여 가능한 자전거 목록 열람. 식당에서 주문을 미리 받아 도착시간에 맞춰 준비함	<b>병원 &gt; 식당</b> 병원업무 끝나고 친구와 약속이 있어 모바일기기는 예산을 고려하여 이동수단(무인차 또는 대중교통)을 물어봄	<b>공항 &gt; 기차</b> 개인 짐은 별도로 심사과정을 통해 운반되며, 도시 물류센터의 전기차 및 드론을 통해 목적지까지 운송됨
<b>버스 &gt; 시내</b> 버스요금은 자동으로 ID인식카드로 결제됨. 개인 전기차 활용할 시 무선 충전소유로 활용권을 통해 시내에서 충전 가능	<b>식당 &gt; 이동</b> 기기는 건강, 안전을 반영하여 음식 추천하고 사용자는 음식으로 음식 주문함. 식비 및 교통비 통합 시스템에 모두 포함됨	<b>식당 &gt; 쇼핑</b> 편의를 위해 음성으로 이동수단 예약 절차를 진행함. 쇼핑은 아이템만 골라서 결제하는 것으로 상품은 집으로 배달됨	<b>기차 &gt; 도심</b> 기차 내에서 개인기기는 자리 안내해주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언어로 번역
<b>시내 &gt; 오피스</b> 도착지점 접근하면서 하차알림문자가 도착하며 표시되며 하차하면서 자동으로 결제완료하고 잔액, 사용횟수 등의 정보 제공	<b>이동 &gt; 콘서트</b> 모바일기기는 콘서트장 위치를 알려주며 길을 알려주며 교통난을 피하기 위해 콘서트장은 geo-fencing하여 빠른 결제 가능	<b>쇼핑 &gt; 집</b> 집으로 가는 길에 물류센터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구입한 제품을 편의를 위해 집 앞까지 배달함	<b>도심 &gt; 숙소</b> 도시 도착할 때 짐 개인기기는 도시라 하는 것을 인식하며, 무인 전기차, 대중교통, 또는 걸어가길 안내함

<http://smarcitiescouncil.com/resources/intelligent-connectivity-seamless-urban-mobility>